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새고려신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21년 3월26일(금) ---(음력 2월 14일)--- Пятница 26 марта 2021г. № 12 (11929)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지난 20일(토)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제5회 <젊은 사할린>재능 축제가 개최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 샤흐초르스크, 코르사코브와 아나와 등지에서 온 수많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장르(악기 연주, 보컬, 단막극 등)에서 공연했다. 축제는 사할린주 민족연합회 후원으로 이루어진다.

축제에 참가한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한민족타악기 팀.

(사진: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 제공)

단신

올가 오를로와 주 회복지부 장관으로 임명

지난 22일(월) 주지사령으로 사할린주 사회복지부 장관 대행으로 올가 오를로와가 부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출신인 그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사할린주 사회복지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했고, 마지막 2년 반은 센터장을 역임했다. 이전 장관이었던 엘레나 카시야노와가는 오하 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장관직에서 사임했다.

오하 시장으로 엘레나 카시야노와 선출

오하 시장직이 지난해 6월부터 공석이었는데 지난 25일(목) 오하 구역 의회 총회에서 새 시장을 선출하는 가운데 후보 3명 중 사할린주 사회복지부 전 장관이었던 엘레나 카시야노와가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19표 중 13표를 받아 승리했다.

사할린 대표로 17명의 학생 전국 올림피아드 결승전에 출전

전 러시아 학생 올림피아드 결승전이 시작됐다. 사할린주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토마리, 흠스크, 샤흐초르스크, 소콜 마을과 레이도보 마을의 학생 17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지역 경시대회의 우승자들이다.

사할린의 고등학생들은 프랑스어, 중국어, 영어, 역사, 정보통신, 러시아어, 생태학, 문학, 지리학, 수학, 기술, 생물학, 사회상식, 생활기초 안전, 세계 문화예술, 체육 등 16개 과목의 올림피아드에 참가한다. 결승전은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러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개최된다.

사할린 지역들이 갚아야 할 채무 금액 총 39억 루블리

지역 재정부 관할 사이트 '사할린주 예산 공개'에서 사할린주 18개 지역의 재정 상황에 대해 매달 보고하고 있다. 3월1일 기준 채무액이 가장 높은 유즈노사할린스크는 15억1,796만380 루블리이며 은행으로부터 17억을 차용했다. 지방자치체의 담보로도 1억5천 루블리의 채무를 지고 있어 총 채무액은 34억 루블리가 된다.

그 다음으로 코르사코브가 2억3,561만 9,610루블리, 쿠릴스크의 예산 채무액은

9천76만4,710루블리, 지방자치체의 담보 대출액은 4,235만7,410루블리로 쿠릴스크의 총 채무액은 1억3,310만 루블리다. 그 외 우글레고르스크, 토마리, 유즈노쿠릴스크, 흠스크, 아나와가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채무가 없는 지역들은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 돌린스크, 마카로보, 네웰스크, 노글리키, 오하, 포로나이스크, 세베로쿠릴스크, 스미르니흐, 티모브스코예이다. 사할린 전 지역의 총 채무액은 39억 1,045만 7,300루블리에 달한다.

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막

한-러, <우정과 신뢰로 함께 빛나는 미래>

3.24(수)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이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외교부 공동 주최로 개최하면서 23일(화)에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연방 외교장관이 방한했다.

이번 개막식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작년년부터 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되어 온 다양한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최초의 장관급 대면 행사로서, '한-러 상호교류의 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개막식에는 정의용 외교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연방 외교장관이 참석하였으며,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미하일 슈비트코이(Mikhail Shvydkoy) 국제문화협력 부문 러시아 대통령 특별대표 등 양국 귀빈 50명이 참석하여 '한-러 상호교류의 해'의 시작을 축하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러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함께 해 왔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러시아 정부와 국민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9개 다리 협력' 등 실질협력과 관련한 신북방정책 추진의 강화의지를 밝히고 한 세대에 걸쳐 '우정'과 '신뢰'를 쌓아온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와 인적교류가 더욱 크게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고품질 및 광대역 인터넷 통신망 소재지 적용 범위 확대

사할린주 정부는 지역에 디지털 제반시설을 개발할 메가폰 통신사와 이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알레리 리마렌코와 게보르그 웨르미산 메가폰 통신사 회장이 서명했다.

"지난 한 해는 고품질의 통신과 빠른 인터넷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팬데믹의 여건 속에 디지털 서비스의 수요가 특히 많아졌다. 우리는 이를 의학, 교육 및 화상회의 등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의 기회를 사할린 전역의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협력사와 함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디지털 기획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해갈 계획이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밝혔다. 사할린주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해저 광케이블 통신망 구축을 제공하는 북극 연결 기획의 참가 지역에 들어가 있다. 이 통신망은 러시아 북극해안을 따라 북극 해양 빙하 밑을 통과해 단시간에 가장 빠른 신호를 제공할 것이다. 구축된 본 광케이블을 끌어다 극지 및 극동지역의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기술 설계자는 오호츠크예해를 통과해 돌린스크 지역까지 끌어들이어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주 정부는 기획에 병행하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새고려신문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한국교육원의 시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

2020년 2월 말 사할린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파견된 **이병일** 원장과 본사 **배순신** 기자가 현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원장님께서 사할린에 파견되신 지 1년이 넘으셨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제대로 교육원 교육과정을 펼치지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 1년의 기간은 어떠하십니까?

- 이 질문은 저도 그 대답을 궁금해 하는 질문이고 무척 무겁고 가슴 아픈 질문이네요. 느낌은 텅 빈 느낌이고 바보 같다는 느낌입니다. 제대로 해본 것이 없어요. 한국 방문 연수나 사할린 방문 연수 등, 사람이 오고 가는 사업은 전혀 없었고, 따라서 유학생이나 국내 교육과정 추천 관련 업무 등도 불가능했습니다. 작년 9월에, 큰 마음먹고 이웃들과 한인센터에서 어울려 춤추자는 취지로 민속춤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사할린에 코로나19 환자가 갑자기 증가하는 바람에 4회 해보고 멈췄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모여 춤추길 아직 기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국어 채택학교나 한글학교 수업을 한 번이라도 직접 보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교육원은 2020년 봄학기에 원격수업을 했고, 가을학기에 대면수업으로 전환했는데, 정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사님들은 원격수업보다 대면수업이 진짜 교육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시고, 저희는 교실 소독과 개인위생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업 때가 되면 모든 직원이 나와 마스크와 체온을 체크하며 대면수업을 실시했습니다. 극동지역 2개 교육원은 아직도 원격수업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저의 1년은, 머리와 가슴이 텅 빈 바보로 살아 온 느낌입니다.
- 그래도 9월에 신입 수강생 모집을 할 때 한국어 수업이 인기가 있어 교육과정 신청을 못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현재 수강생은 몇 명이고 어떤 교육과정이 인기가 더 많은지요?

- 신청 못한 사람이 몇 명 있기는 한데요. 인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봄학기에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 다음 학기에 당연히 들 수 있겠지 생각하고, 신청기간 막바지에 등록하려 했다가 그만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만 하다가 가을학기의 대면수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텐데 신청 못해서 아쉬움이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1년 봄학기는 비자 갱신 자체가 한국에 있는 동안 모집을 시작하면서, 그만 신문에 홍보를 못하고 홈페이지에서만 모집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망설임으로 인해서, 제가 개설하고 싶었던 '글쓰는 사할린' 강좌나 '한국어 고급 강좌', '민속춤 교실' 등을 확실히 결정하지 못한 채 홍보와 모집이 끝났



여요.

그래서 현재 한국어 강좌, 한국 문화 강좌 총12개 강좌에서 예년 수준만큼인 200여 분의 수강생들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인기있는 강좌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국어 학습, 한국 문화 등에 대해서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정도의 한류 열기나 관심은 와닿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어를 배워서 취업할 한국계 회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학, 취업 등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현재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를 아주 열심히 배울 동기가 크지 않은 부분도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 예절 등 수업으로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한식요리 반도 계속 하시고 계신지요?

- 2세 어르신들 12분 정도가 한국 문화, 한국어, 한국 노래, 문학 등을 체험하는 한국 문화 수업에 참여

하시는데, 아주 오랫동안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국 문화 수업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업내용이 어려울 수 있고, 오래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좀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코스의 단계를 두어 새로 오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식 요리반도 한국 문화 특색이 짙은 인기 강좌인데, 코로나19 격리 이후 수업에 참여하던 선생님, 수강생 모두 흩어져 사할린을 떠나고 해서 현재 개설이 안된 상황입니다.

- 올해 사할린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나요?

- 2021년 한국어능력시험은 10월 17일에 실시합니다. 2020년에 방역조치 하에서도 7월에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올해 4월12일에 실시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극동 3개 교육원 모두 10월 17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도 비자 갱신 차 일시 귀국해서 4월 12일에는 한국에서 자격리 중일 겁니다.

가을이나 다음 학기 초에 한국어능력시험 접수나 급수가 필요한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험 응시료가 좀 인상됩니다. 사할린의 응시료가 그 동안 국내와 다른 나라의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토익, HSK 같은 외국어 시험보다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국제교육원에서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결정하여 부득이

최소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유학 희망자나 국내 대학 장학금 수령을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 코로나 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이 실시하는 행사가 있는지요? 그리고 올해 계획하실 행사도 궁금합니다.

- 아직 모든 것이 불분명합니다. 상호 방문하는 사업과 행사는 올해도 예산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한국 문화 행사를 사할린 현지 학교, 유치원 등에서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한인협회와 공동으로 K팝 경연대회, 김치 축제 등을 계획하고 있고, 사할린국립대학교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어 위크숍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혼자서 사할린 전역을 대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할린의 한인단체, 교육기관 등이 주축이 되고 교육원이 지원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으로의 유학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나요? 정부 지원 장학프로그램이나 재외동포재단 지원 장학프로그램 등 올해도 실시할 예정이신지요? 동서대학교 유학 사업도 궁금합니다.

(7면에 계속)

이 모 저 모

사할린, 아동도서 주간 시작

〈독서하는 유년기의 나라〉라는 주제로 사할린주 아동도서관이 '콤포몰레츠' 영화관 상영실에서 사할린 지역 아동도서 주간 개막행사를 개최했다. '2020년 우수 독자' 주 경연의 우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아동도서관의 가장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독자이기도 하다. 아동들을 위한 큰 축하 프로그램이 마련된 가운데 이들은 새로운 문학 도서를 접하고, 동화 속 주인공들과 만나며, 게임쇼에도 참가했다. 이 모임에서 경연의 우승자들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선물로 엘레나 돌기흐의 작품 '타이가의 주인. 시베리아 숲속의 이야기'를 증정했다고 도서관 측이 전했다.

이에 지역 문화고문서부 수석 고문 이반 타르쉬코브와 사할린의 작가 예레나 돌기흐, 엘레나 나마코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동 창작팀의 학생들이 축하 인사를 했다.

아동도서 주간 행사는 약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43년 모스크바에서 동화작가 레브 카실의 주도로 처음 실시된 이 행사는 진정 국내 모든 아동도서관의 역사와 조국의 아동문학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 중 하나다.

사할린주 아동도서관은 전례대로 봄방학 기간에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Неделя детской книги стартовала на Сахалине

"Страна читающего детства" — под таким названием в кино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Комсомолец"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дет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открыла неделю детской книги в регионе. В зале собрались победители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Лучший читатель — 2020" — самые активные, творческие читатели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Для ребят состоялась большая праздничная программа, во время которой он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литературными новинками, встретились со сказочными героям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игровом шоу. Во время мероприятия победители конкурса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дипломами. В подарок читатели получили книгу "Хо-

зяйка тайги. Сказки сибирских лесов" от автора Елены Долгих, сообщает библиотека.

Ребята поздравили ведущий советник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Иван Таршиков, сахалинские авторы Елена Долгих и Елена Намаконова, а также воспитанники детски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еделя детской книги имеет почти восьмидесятилетнюю историю. Проведённая впервые по инициативе детского писателя Льва Кассиля в 1943 году в Москве, она по праву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значимых событий в отечественной д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и в жизни всех детских библиотек стран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дет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в дни весенних каникул по традиции организует разнообраз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детей.

사할린에서 생태학교 '초록 섬' 봄학기 시작

22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초록 섬' 시간제 생태학교의 봄학기가 시작되었다. 일주일 동안 주내 쿠릴열도를 포함해 14개 지역에서 온 50명의 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다. 학생들을 위한 활동교실과 상호작용 수업은 동물원과 향토박물관, '판토리움', 사할린 국립대학에서 진행된다. '로드니크'사회단체는 '부세' 호수로 1일 견학을 조성할 계획이다.

봄학기 동안 학생들과 함께 두 명의 준 과학자를 포함해 경험 많은 교사들과 학자들이 활동한다.

"또한 올해는 '엑손 뵈체가스 유한회사'로부터 장려금을 받아 '초록 섬' 학교와 병행 일환으로 '생태환경보호의 언론' 수업을 진행한다. 현재 이를 위해 미디어 장비를 구비하여 이번 학기 과정에서 학생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소셜미디어마케팅'으로서 언론, '애니메이션 제작' 등의 언론 교육 프로그램에 속하는 훈련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 학교 부 보충학습센터의 교수법 연구가인 나탈리아 사포즈니코와가 말했다.

이 학교는 자연보호활동과 생물학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을 고려한 교육과 지속적인 환경보호 보충교육 프로그램 구

성요소 중 하나다.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а весенняя сессия экошколы "Зелёный остров"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а весенняя сессия областной очно-заочной экологической школы "Зелёный остров".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около 50 школьников из 14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в том числе с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ждёт очень насыщ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Так,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интерактивные уроки для детей пройдут в зооботаническом парке,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Кванториуме",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е.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одник" организует однодневную выездную экскурсию на лагуну Буссе.

Работать со школьниками в течение сессии будут опытные педагоги и учёные, в том числе двое кандидатов наук.

— Кроме того, в текущем году мы выиграли грант компании "Эксон Нефтегаз Лимитед",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параллельно со школой "Зелёный остров"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класс "Экологическая журналистика". Сейчас для него приобретается медий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но уже в ходе текущей сессии ребята смогут опробовать дисциплины, которые войдут в журналистск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 такие как "Работа с сайтом", "SMM-журналистика", "Мультипликация", — сообщила методист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нешкольной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Наталья Сапожникова.

Школа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составных частей программы непрерывного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воспитания школьников, рассчитанной на тех, кто проявляет интерес к биологическим наукам и природоохра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общает центр внешкольной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사할린 주민들, '정물 세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것

3월 22일 사할린주 도서관에서 '정물 세계의 아름다움' 아동 정물화 미술전시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주 도서관이 주 문화분야 교육자원센터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8면에 계속)

주 사할린 한인청년회,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자선행위 펼쳐

최근 3년 동안 사할린주 한인협회 청년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년에 청년부는 주 사할린 한인청년회(회장 이 세르게이)로 공식 등록되었다.



청년들은 자원봉사 기획, 주와 시의 행사, 주한인협회의 대규모 행사 추진과 조직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재작년부터는 사할린주한인협회가 한국 국제의료보건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사할린 잔류 어르신들을 위한 <현지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청년회는 자원봉사만 아니라 자비로 한국산 쌀을 구매하고 지방에 있는 1세들에게 전달기로 했다. 이 자선행위는 지난해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그 동안 쌀을 코르사코브, 프라우다, 고르노사위드스크 네웰스크, 체호브, 토마리, 마카로브 등지까지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 측에서는 이에 차량 제공으로 지원했다. 스미르니흐 같은 경우 사할린 주두마의 알렉산드르 볼로트니코프 의원을 통해 전달되었다고 박순옥 주 한인협회 회장이 전했다.

3월 20일(토), 아침 일찍 출발한 청년회의 오 블라디미르 회원과 김 아르쎌 회원이 사흐츠크스키와 우글레고르스크 어르신들에게 50여 포대를 전달했다. 이들과 함께 움직인 박순옥 회장은 한인들과 만나 올해 영주귀국사업 설명도 해주고 여러 질문에 대답했다. 또한 지방에 가는 길에 그는 2015년에 실태조사를 받은 일부 한인 2세들의 명단을 재작성했다.

한인청년회의 자원봉사와 자선행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주 한인협회 회장에 따르면 올해 국제의료보건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건강 관리>프로그램의 총책임을 청년회가 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사할린에서 애국적 예술영화 제작 추진

지난 19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메가 베료즈카>쇼핑센터에서 1945년 9월 극동지역에서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을 설명하는 <사할린의 전투장(사할린스키 루베즈)>영화 제작에 대한 발표회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베를린에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2차 대전 마지막 총소리들이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들렸다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

영화는 소련 군인들의 용맹과 국민의 영웅심을 보여주고, 일본 간호사와 러시아 군인과의 사랑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사할린에 많은 한인(강제동원 된 사람들과 그들의 식구)이 살고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도 꼭 얘기하고자 한다. 영화에 카미스카 또는 미주호 비극(한인 학살 사건)에 대한 장면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제작 측이 전했다.

미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나기에바 크세니야가 영화 프로듀서이며, 감독은 이완 차노브이다.

영화의 재정지원 문제는 <선행(착한 일)>펀드가 맡을 예정이며 영화 제작자들은 이 영화가 청소년 애국심을 향상시키며, 러시아와 외국 사회계의 관심을 끌고, 사할린 지역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하고 있다.

구체적인 각본 쓰기를 여름쯤에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5월 1일까지 시나리오 대한 아이디어와 그 당시에 대한 회상,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idea@sakhalin.store 로 보내줄 것을 주최 측이 요청했다.

(배순신 기자)

사할린주, 백신 '스푸트니크 라이트'의 접종 시작

사할린주가 러시아에서 새로운 백신 '스푸트니크 라이트' 첫 접종 지역이 되면서 러시아 연방 보건부가 150회분을 보급했다. 1차 접종량이 전달되어 비접종자들이 사전 검사를 받고 이들 중 일부가 백신 접종을 받았다.

1회성 백신 접종이라는 점에서 '스푸트니크 라이트'를 접종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끄는 주요 조건이 되고 있다. 비접종자들에게 접종 필요성을 정하는 것은 의료진에게 있는데 비접종자들은 생화학적, 임상적 수치 검사와 감염에 대한 분석을 사전에 통과해야 한다. 이미 사할린주에 보급되었던 '스푸트니크V' 백신은 사할린주에서 접종 후 중증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점에서 이미 그 효력을 입증했다.

연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접종 받은 사람들의 항체 생성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곧 휴가철이 시작돼 많은 사람들이 내륙으로 여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감염병 역학 상황을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제3의 팬데믹이 우려되고 있으며 몇몇 국가들은 다시 국경을 차단하고 있다. '스푸트니크 V'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영국의 변종 균주들에 대해서도 면역 반응을 형성하고 있다. 백신 접종으로 모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것이다."라고 사할린주 보건부 장관 블라디미르 쿠즈네초브가 말했다.

사할린주에는 91개의 백신 접종소가 마련돼 있다. 접종은 거주지 보건소와 외딴 지역이나, 출장 시 이동검진 차량에서 받을 수 있다. 접종 예약은 전화 1-300, 국가 포털서비스,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울산시 11월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양국 35개 지역 2천여명 3~5일까지 "코로나 상황 따라 변동"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연기를 거듭했던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개최일이 확정됐다.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2개국 35개 지역의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와 롯데호텔 등에서 개최된다.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하 포럼)'은 울산 개최가 확정된 뒤 당초 지난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같은 해 11월 4일부터 6일로 한 차례 연기됐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다시 연기된 뒤 올해 11월 3일부터 5일까지로 확정됐다.울산시의 개최계획에 따르면 포럼에는 한국 17개 시·도 지자체장을 비롯해 러시아 극동연방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장 등 2개국 35개 지역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극동연방관구는 총 11개로 연해주, 하비롭스크주, 사할린주, 아무르주, 캄차트카주 등이고, 북극지역은 7개로 무르만스크주, 네네츠자치구, 야말로-네네츠자치구 등이다.주요 일정으로 1일차인 11월3일에는 환영만찬 및 축하공연이 열리고, 2일차인 11월4일에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의를 비롯해 한-러 양자회담,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를 통한 공동선언문 채택 및 안전 상정

을 한다. 또 전문가 세션 및 무역상담회 등도 열린다. 마지막 3일차에는 울산지역 산업시설 및 문화 탐방을 한 뒤 출국길에 오른다.시 관계자는 "다만 코로나19 사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시는 지난 1월27일과 28일, 3월12일 3차례에 걸쳐 러시아 톰스크주와 블라디보스톡, 중국 창춘시와 화상회의를 갖고 한-러 지방협력포럼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특히 블라디보스톡과는 코로나19로 중단된 블라디보스톡 주 거환경개선 사업을 재개기로 했고, 포경산업과 관련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한편 송철호 시장은 울산을 북방경제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해 러시아에 원유·가스, 북극항로, 일자리, 조선 부문의 협력방안 제시하는 등 북방경제협력의 큰 틀을 제시했다. 당시 러산(RUSSAN·러시아와 울산의 합성어) 마켓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극동 러시아 지역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블라디보스톡시를 방문해 두 도시 간 우호협력도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출처: 울산제일일보)

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막

한-러, <우정과 신뢰로 함께 빛나는 미래>

(1면의 계속)

또한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개막식 축사를 통해 양국이 수교 이래 안보,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견고하고 호혜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해왔음을 평가하면서, 이번 한-러 상호교류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가자고 하였다.

특히 '우정과 신뢰로 함께 빛나는 미래'라는 구호 아래 진행되는 다양한 수교 기념사업들이 향후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개막식은 △ 양국 예술인의 합동 재즈공연, △ 조수미·손연재 등 문화·체육계 인사의 수교 30주년 축하 메시지 상영, △ 푸쉬킨 메달 수여식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푸쉬킨 메달은 러시아 정부가 1999년부터 문화, 예술, 교육 분야에서 공로가 인정된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날 개막식에서는 한-러 문화교류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이상균 한-러 문화예술협회장이 수상했다.

축하공연으로 러시아 재즈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질린(Sergey Zhilin)'이 이끄는 재즈 밴드 '포노그라프 재즈 콰르텟(Fonograf Jazz Quartet)'

이 내한해 한국의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와 함께 'Summer Time(여름날)', '진달래' 등 우리에게 친숙한 재즈곡들을 합동 공연하였으며, 한국 댄스팀의 역동적인 스윙 댄스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현장 참여자 수를 50명 내외로 제한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이와 함께 행사 전체를 한국(외교부 온라인 중계 플랫폼 라이브포)과 러시아(러시아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여 열린 참여를 지향하는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로 진행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한국을 찾은 것은 푸틴 대통령 수행차 2013년 11월 방한 이후 8년 만이다. 25일 오전에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관계, 한반도 문제, 정상외교, 국제 현안을 비롯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실현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금년 말까지 계속되는 '한-러 상호 교류의 해'를 통해 다양한 문화·인적 교류 사업을 실시하여 한-러 양국 국민들이 서로의 다양한 면모를 이해하고 한층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 자료와 언론사 기사 인용)

주지사, 러시아 알파인 스키 스포츠연맹 회장과 만나

극동컵 알파인 스키대회의 중간 성적에 대해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러시아 알파인 스키 연맹 회장 레오니드 멜니코브가 논의했다. 제6회 극동컵 경기가 사할린에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 13개국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레오니드 멜니코브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전례대로 사할린에서 세계적인 경기를 개최해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 참가자들 수가 경기 조직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의 선수들을 비롯해 전 세계의 선수들이 가까이 사할린을 찾아오고 있다."며 치하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는 사할린에 좋은 스키 리조트가 있고, 대중을 위한 스포츠가 생활방식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스포츠에 대한 제안들을

지지하며, 사할린의 선수들이 사할린을 찾는 스포츠 선수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스위스 팀은 출전 기회를 갖자마자 준비하러 와서 사할린의 슬로프에서 훈련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극동 대륙컵은 국제 스키연맹의 협력으로 연례적으로 열리는 위상 높은 알파인 스키대회이다. 실력 있는 선수들이 남녀 각 종목에 출전해 우승자를 가려낸다. 올해는 팬데믹으로 유사한 행사들이 대거 취소되면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알파인 스키 경기에 대한 관심은 특별히 높았고 '고르니 워즈두흐' 종합 스포츠 단지는 이런 수준의 대회를 치르기에 아주 적합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оект создания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фильма представили на Сахалине



В прошлую пятницу, 19 марта, в ТРЦ «МЕГА Березка» на 5 этаж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идеи фильма «Сахалинский рубеж», на которую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и журналисты.

Идея фильма «Сахалинский рубеж»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бы рассказать об окончани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рубеже СССР в сентябре 1945 года.

За все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было снято множе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фильмов 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И большинство людей считают, что финал этой войны произошел в Берлине, и мало кто помнит и знает, что именно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рогремели последние выстрел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Авторы идеи фильма хотят показать героизм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в битвах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а также повесть историю любви японской девушки и русского солдата.

Так как в тот период на Карафуто(Сахалин) проживало немало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 картине хотят раскрыть малоизвестные факты из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может быть будут показаны трагедии, случившиеся в августе 1945 г. в Камисисука (Леонидово) и Мидзухо (Пожарское).

Продюсером этого полнометраж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фильма стала Ксения Нагиева, режиссером – Иван Чанов.

По мнению двигателей идеи создания фильма, фильм «Сахалинский рубеж» окажет влияние на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сахалинской и 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ежи, привлечет внимание российской и зарубежн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обеспечи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оток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Сбором финансовых средств занимается фонд «Добрые дела», который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формирует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й комитет для прозрач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финансов.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глашают всех, кому интересен проект,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идеями по поводу фильма, рассказать о каком-либо эпизоде из жизни того периода, о воспоминаниях, которые хранятся в семье. Авторы проекта говорят о важности деталей.

Все это будет учтено при написании сценария.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можно будет прислать по адресу idea@sakhalin.store.

Виктория БЯ

РК и Россия отметили 30-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24 марта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по случаю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К и Россией. Она планировалась на прошлый год, но была отложена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и речами к участникам церемонии обратились главы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ведомств двух стран.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Чон Ый Ён отметил резкий рост двусторонних обменов, в частности, увеличение товарооборота с 200 млн долларов 30 лет назад до более чем 22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2019 году. Это является доказательством того, что две страны являются «хорошими друзьями и партнерами», - отметил Чон Ый Ён. Он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оссия вместе с РК находится на пути к прочному миру на раздел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ответной речи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ергей Лавров сказал, что решение двух стран установит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три десятилетия назад вырвало их из «порочного круга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Он назвал двусторонние связ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хорошим и дружественным» партнерством. «Отношения характеризуются общими интересам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м и доверием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Двустороннее



Photo : YONHAP News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ется благодаря торговле, экономическим обменам и инвестициям», - добавил Сергей Лавров. 25 марта состоялись переговоры глав МИД РК и России, в ходе которых обсуждалась ситуац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и региональ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KBS World

Молодежь РООСК занимаетс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ью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пр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успешно действует молодежный отдел.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и официа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в Минюсте как Молодеж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дседатель – Сергей Ли). Ребята занимаются волонтерскими проектами,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города и области, помогают РООСК в организации масшта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участвуют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Здоровья» для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Они частые гости в районах.

Молодежь заним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волонтерством, но 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помощью. Так на заработанные деньги ребята решили приобрести мешки риса (Южная Корея) для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развезти по районам. Акцию начали проводить с конца прошлого года. Этот рис уже с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пожилые люди Корсакова, Чехова, Горнозаводска, Невельска, Томари, Макарова, Смирных. Поддержку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оказывает РООСК, выделяя автобус и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поездки. Единственное, в Смирных (там проживает 4 чел. 1-го поколения) подарки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ередаются через депутата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лександра Болотникова. 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за это.

А в прошедшую субботу активисты молоде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ладимир О и Артем Ким повезли подарки в один из самых дальних районов, где компактно проживают корейцы - Углегорский район. Вместе с ними в район отправилась 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решив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возможностью встретиться с корейским населением, поработать со списками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е встречи в Шахтерске и Углегорске, часть риса волонтеры разнесли, развезли по домам, а часть жители забрали сам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в этой поездке ответила на вопросы, интересующ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частности об осуществлении проекта ПМЖ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исполнения Спец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ак Сун Ок провела также частичную переп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2-го поколения,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анкетирование в 2015 г.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и волонтер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Как сообщила Пак Сун Ок, в этом году за программу «Здоровье»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отвечать молодеж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Виктория БЯ

Сеул проявил твердость перед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напором СШ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екретарь США Этони Блинкен и американский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Ллойд Остин завершили свои визиты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РК). Несмотря на активные переговоры, встречу с президентом Южной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ом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ов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ША не смогли убедить Сеул поддержать антикитайские инициативы Вашингтона. Южная Корея также дала понять, что у нее свое видение и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Разногласия стали особенно очевидны в ходе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ле встречи министро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и обороны РК и США в формате "2+2". Вероятно, теперь США будут дожидаться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водя заранее "обработку"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ых кандидатов на пост нового лидера РК, чтобы те уже были более восприимчивы к стратегии Вашингтона в регионе.

Обычно от военных ожидают прямых и четких высказываний, которые сразу позволяют понять, чего они добиваются, тогда как дипломаты, если следова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му мнению, должны плести кружева из слов, всячески "сглаживать углы" и обходя возможные конфликтные вопросы и разногласия. Однако прибывшие 17 марта в Сеул главы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и оборо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были едины в формулировках, причем госсекретарь США Этони Блинкен даже выглядел "более военным", когда это касалось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Китая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визита и до вылета из Южной Кореи Блинкен не устал прямо говорить об угрозе для региона 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о стороны "репрессив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итая и "агрессивного и авторитарного поведения" Поднебесной.

(Продолжение на 5-ой странице)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К и Россия договорились сотрудничать в мирном проце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РК и Россия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должать тесное общени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прогресса в мирном проце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для прессы, с которым выступил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Чон Ы Ён после состоявшихся 25 марта в Сеуле переговоров со своим российским коллегой Сергеем Лавровым. Он призвал Москву продолжать играть конструктивную роль в укреплении мира в регионе. Российский министр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ризвал «вс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е страны отказаться от гонки вооружений и активизации всех видов во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осси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открытом и инклюзивном форуме д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Лавров. Он сообщил также, что на переговорах был подтвержден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алога, настрой на дальнейшее расширение и активизацию контактов, в том числе, между президентами и по ли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 Глава российского МИД обсудил возможность визита в Сеул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одтвердила своё приглашение, и визит может состояться, когда позволит эпиде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 отметил он. В тот же день Сергей Лавров вылетел в Москву.

КНДР разорвала дипотношения с Малайзией

КНДР сообщила о полном разрыв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Малайзией, обвинив Куала-Лумпур в незаконной выдаче американским властя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гражданина.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МИД КНДР,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19 марта агентством ЦТАК, «власти Малайзии совершили непростительное преступление, насильственно отправив неви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КНДР в СШ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явила, что бизнесмен занимается «законной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и предупредила, что власти Малайзии будут нести пол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любые последствия, которые возникнут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Этот поразительный для мира инцидент является явным продуктом заговора против КНДР, созданного в результате отвратительной враждебной политики США,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изоляцию и удушение нашей страны, а также проамериканского подчинения со стороны властей Малайзии,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В нём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в связи с серьёзной ситуацией, которая сложилась,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заявляет о полном разрыв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Малайзией». Виновик скандала - 56-летни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бизнесмен по имени Мун Чхоль Мён. Он покупал дорогой алкоголь и часы и через подставные компании отправлял их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Данные товары подпадают под категорию предметов роскоши, запрещённых для поставок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К сократилось до минимума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К, достигло минимальной отметки с декабря 2015 года. Согласно ежегодному статистическому отчёту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РК от 17 марта,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январь 2021 года в стране проживали 2 млн 14 тыс. 433 иностранца, что на 17% мен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Начиная с декабря 2019 года численность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К непрерывно снижалась. Число безвизовых туристов, въезжающих менее чем на 90 дней,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январь снизилось на 39%, составив 418.904 человека. Это самый низкий показатель с декабря 2013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с долгосрочной визой, составило 1 млн 595 тыс. 529 человек, что на 8,4% мен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При этом большин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проживающих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РК, составляют выходцы из Китая (43,7%), за ними следуют граждане Вьетнама (10,5%), Таиланда (8,9%) и США (7,3%).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в РК снижается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й спрос

Южнокоре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возвращается на путь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благодаря устойчивому экспорту и инвестициям, но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й спрос остаётся вялым из-за каранти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Зелёной книге» - ежемесячном отчё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РК,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19 марта. В документе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экспорт вырос в феврале на 9,5%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благодаря стабильным поставкам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и автомобилей. Тем не менее, ситуация на рынке труда остаётся сложной, хотя в феврале потери рабочих мест сократилис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месяцем. Частное потребление остаётся на низком уровне, поскольку жители страны воздерживаются от посещения магазинов из-за роста числа случаев коронавируса и жёстких антивирусных мер. Начало вакцинации против COVID-19 вселило надежды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но волатильность на мировых финансовых рынках усилилась из-за опасений по поводу растущих инфляционных рисков, - отмечается в «Зелёной книге».

(RKI)

Сеул проявил твердость перед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напором США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Он и вторивший ему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США Ллойд Остин недвусмысленно намекали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ыстраивания с Сеулом общей линии, координации усилий по части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этим угрозам.

Однако, судя по содержанию совместного заявления, которое было вчера подписано в Сеуле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министров обороны и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и США в формате "2+2", стороны явно не смогли договориться, а Южной Корее удалось проявить твердость, противодействуя давлению США.

В итоге в совместном заявлении,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высказывания Блинкена и Остина, про Китай упоминается нет вообще, а содержатся лишь слова о "совместной позиции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любым усилиям, направленным на дестабилизац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орядка, основанного на правилах".

Сравните это с содержанием подписанного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до этого по аналогичному поводу совместного заявления по итогам американо-японской встречи "2+2", где было прямо сказано про "дестабилизирующее поведение Китая" в регионе и, как говорится, почувствуйте разницу. Сеул, в отличие от Токио, не захотел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явно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антикитайским инициативам Вашингтона. В целом Южную Корею можно понять: она не хочет ссориться ни с кем - ни с главным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м союзником в лице США, ни с главным торговым партнером в лице Китая, и категорически не желае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американо-китайском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на чьей-то стороне.

В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ом заявлении также нет упоминания о продвигаемом СШ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рамках инициативы QUAD, которое также носит антикитайску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и куда, судя по поведению и высказываниям официаль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ША, они хотели бы подключить еще и Сеул. Однако в ходе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глава МИД РК Чон Ы Ён,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журналистов, заявил, что "подоб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е обсуждалось".

Не менее очевидные расхождения выявились между США и РК и по второму важнейшему вопросу -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е. Если в своих личных заявлениях Блинкен и Остин постоянно намекали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давления на КНДР, активного обсуждения вопроса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то в заявлении опять же остались лишь общие слова о том, что для союзников "ракетная и ядерная проблем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является предметом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и и внимания".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в заявлении вообще нет ни единого слова и 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 американские политики сделали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утечек о точном содержании прошедших при закрытых дверях переговоров, но с большой долей уверенности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не смогли согласовать, что именно надо "денуклеаризировать". Если Блинкен постоянно говорил лишь пр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ю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то его южнокорейский коллега в ответ не менее настойчиво подчеркива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тказа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на всем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 заявлении нет упоминания и о "мирном проце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что является официальным лозунгом нынешн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и подразумевает развитие связей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Пхеньяно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жо Байдена этот подход 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а потому и этой "пр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идеи Сеула не оказалось в совместном заявлении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2+2" в Сеуле.

Интересно, что министры двух стран не постеснялись выплеснуть эти различия в подходах и во время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Более того, даже создатель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 офици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ША и РК наоборот использовали любой вопрос журналистов, чтобы напомнить о своих позициях, которые, что стало очень заметно, во многом противоречат друг другу. В итоге Блинкен и Остин говорили об "агрессивной позиции Китая", "необходимости координации усилий" союзников, напоминали о правах человека в КНДР,

подчеркивал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том числе, и давления на Пхеньян.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южнокорейские министры, где, конечно ж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говорил глава МИД РК Чон Ы Ён, указали на "мирный процесс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одчеркнули его эффективность и указали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К и США по части реш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ы в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имея в виду попытки активного подхода предыдущего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делавшего ставку на личное общение с КНДР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Как можно догадаться, данные отсылы к "эпохе Трампа" не могли понравить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емократов США, которые постоянно критиковали подход предыдущего американского лидера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ША и РК не смогли достигнуть особого прогресса и по вопросу о передаче военн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над объединенными войскам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Американцы отказались связывать себя какими-то временными рамками, отделавшись лишь общими фразами. Впрочем, с учетом так отчетливо проявившихся базовых расхождений между США и РК по Китаю и КНДР вполне может быть, что Вашингтон теперь куда меньше будет настроен что-либо передавать южнокорейцам по части военн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где США видят свое военное присутствие в том числе и в целях активног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Китаю.

Состоявшаяся затем встреча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с американскими министрами Блинкеном и Остином ничего не изменила в подходе. Мун озвучил общие фразы, которые приняты в рамках двустороннег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политаеса, о "незыблемости и поступательном развитии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союз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США" и пообещал, отвечая на пожелания американцев, что "будет искать пут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Японией", что так надо США для развития трехстороннего вое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егионе с участием Вашингтона, Токио и Сеула.

В общем, стало очевидно,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и США соблюли правил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иличий и выразили друг другу знаки внимания и уважения, но при этом разошлись в подходах по важнейш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Учитывая напор, с которым Блинкен и Остин постоянно и подчеркнуто озвучивали свои позиции,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Сеул (как минимум внешне) "не прогнулся" под давлением Вашингтона и указал, что у него свое, зачастую отличное от нынешн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ША, видение того, как надо выстраивать отношения с Пекином и Пхеньяном.

Безусловно, вряд ли это всё приведет к явному конфликту между США и РК, так как стороны однозначно не настроены концентрироваться лишь на расхождениях, но такие различия вряд ли Вашингтону и Сеулу удастся урегулировать за один год. Именно столько осталось до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в Южной Кореи, в которых нынешний лидер РК Мун Чжэ Ин, согласно Конституции РК, не может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я.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через год у Южной Кореи точно будет новый президент и нов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из-за больших расхождений,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ной южнокорейцами твердости и относительной нехватки времени, США не станут тратить много времени и усилий на убеждение нынешн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РК, а скорее сосредоточатся на "обработке" основных кандидатов на посты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чтобы заранее гарантировать их большую покладистость пожеланиям Вашингтона.

Первый визит госсекретаря и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США в Сеул при новой америк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итоге, как говорится, "оставил осадок" для обеих сторон. В этой связи привлекает внимание, о чем будут говорить министры Южной Кореи и России в ходе визита главы МИД РФ Сергея Лаврова в Сеул 23-25 марта. Судя по подходам, у Москвы и Сеула хватает точек для сближения по повестке как двустороннего, так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ключая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и прочие проблем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еул)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Континентальный кубок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Чтобы выявить сильнейши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брались более 180 горнолыжников из России, Казахстана, Киргизии, Японии, Аргентины, Чехии, Эстонии, Дании, Словении, Австрии, Германии, Болгарии и Канады.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состоялась на средней площадке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 Наш регион уже в шестой раз принимает у себя престиж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 этап Кубк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дуется, что с каждым годом географ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расширяется. На этот раз на Сахалин прилетели спортсмены из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и Латинской Америки. Надеюсь, вы увезете с собой не только медали, но и приятн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о нашем замечательном спортивном комплексе «Горный воздух» и гостеприимных людях. Желаю всем спортсменам удачи, здоровья и быстрых секунд. Пусть победит сильнейший! – сказал, обращаясь к участник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Континентальный кубок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Far East Cup) – это ежегодный цикл престижных горнолыж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д патронат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и лыжного спорта и по ее правилам. Сильнейшие спортсмены выявляют победителей в общем зачете и отдельных дисциплинах среди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на кубк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значительно повышают рейтинг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Так как в этом году из-з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отменены мног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добного уровня, интерес горнолыжников к соревнования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метно вырос.

– Очень благодарен организаторам за то, что они в такой непростой момент смогли организовать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столь масшта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и пригласить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 отметил 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горнолыжного 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Леонид Мельников.

– Я уже опробовала трассу, она мне понравилась. Организац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 сказала участница японской команды Хирота Тизуки.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по праву считается лучшим горнолыжным курорто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Ежегодно на его склонах проходят соревнова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уровня, в частности, чемпионат России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и сноуборду среди лиц с поражениями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Итог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WorldSkills подвели на Сахалине

Награды получили более 300 конкурсантов, которые показали свои навыки в 89 компетенциях. Лучшие из них представят область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чемпионате в Уфе.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VI Рег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состоялась сегодн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обравшихся в своем видеообращении поздр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ы молодая элит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лучшие в сво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С вашей помощью мы будем воплощать проекты по развитию региона и страны в целом. Я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кто показал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и смог войти в число призеров и победителей. Вы доказали свой высокий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нестандартное мышление и волю к побед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шли по 89 компетенциям, что почти в два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дно из но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 «Ресторанный сервис».

– Испытания были по обслуживанию гостей, декантации вина, модификации специй, напитков. Также мы варили кофе и делали коктейли. Победила благодаря знаниям, полученных от тренеров. Я вложила все свои силы, нервы. Сейчас придется еще сильнее тренироваться, учиться. Очень хочу побывать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чемпионате, – поделилась Алина Гаршенина.

Всего в чемпионате поучаствовали около 600 человек. Впервые состоялись дет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BabySkills», которые собрали участников от 7 до 10 лет. Сахалинцы в возрасте от 50 лет и старше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Навыки мудрых».

– Мы задействовали около 30 площадок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Шахтерске, Горнозаводске, Тымовском, Поронайске, Холмске, Долинске и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ажно, что смогли привлечь более 3 тысяч школьников, которые посетили чемпионат в рамках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ой работы.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том, что впервые отборочный чемпионат по компетенц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пройдет на Сахалине. К нам приедут 7 регионов, – рассказа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впервые компетенции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на площадках партнеров. Ребята проходили испытания в условиях, близких к реальным. Например,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компетенции «Сервис на воздушном транспорте» прошли в аэропорту. Оценивали мастерство молодых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около 450 экспертов, а помогали в организации события более 300 волонтеров.

В рамках чемпионата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и деловая программ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руководители предприятий и эксперты обсудили тему подготовки ка-

дров для медицинской, строительной, угольной, рыбной,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ей, а также сферы услуг.

– Спикерами на встречах бы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рупнейших предприятий области. Среди них – «Восточная горнорудная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Говорили об инструментах, которыми сахалинс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уже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Например, агентство успешно занимается разработкой и внедрением корпоративных стандартов, – пояснил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гент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ожепенко.

Передовой опыт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АНО «Агентство развит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Ворлдскиллс Россия)» Алексей Тымчиков.

– Разработка корпоративных стандартов необходим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ать сигнал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о том, по каким профессиям необходимо готови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лидер по апробированию технологии связи работодателя с системой образования, – заявил Алексей Тымчиков.

Победители чемпионата получили медали за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Некоторы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приглашения на работу. Специальный приз – медальоны за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вручен ребятам, которым немного не хватило баллов до третьего места.

Впереди победителей ждут отбороч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по каждой компетенции они пройдут в разных городах. Лучшие из лучших попадут в состав региональной сборной, которая отправится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Обладателей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будут награждать во время поездок в районы

Сегодня победителей и лауреатов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чествовали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ей Белик поблагодарил активистов и вручил статуэтки в форме маяка.

–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объединил людей, кто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кто стремится сделать жизнь на островах лучше. Вами гордится вс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Хочу пожелать вам самого доброго и светлого. Не останавливайтесь на достигнутом и в полной мере используйте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на благо родного региона и своих земляков,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Награды получили заведующая Арковской модельной сельской библиотекой Ирина Шурыгина, организатор молодеж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активист волонтерского движения Евгений Лавицкий, а также выдающаяся мама Валентина Заруднева. Она достойно воспитала 26 детей, из которых четверо кровных, остальные – приемные.

Премия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2020» объединила людей самых разных профессий – учителей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рачей и спортсменов, волонтеров и благотворителей, социальных работников и молодежных активистов. В проекте года участвовали не только жители, но и предприятия,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Всего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голосования определены 59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и 119 лауреатов.

Из-за пандемии масштабную церемонию награждения провести не удалось – итоги подвели на праздничном онлайн-концерте. Поэтому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 чествовать победителей во время визитов в районы губернатора 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также поощрил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активистов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взаимопомощи #МыВместе. Во время борьбы с пандемией волонтеры бескорыстно оказывали помощь тем, кто в ней нуждался.

На Сахалине расширяют охват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качественной сотовой связью и широкополосным интернетом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договорились об этом с компанией Мегафон, которая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 в регионе цифров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одписа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ператора связи Геворг Вермишян.

– Прошедший год показал, насколько важно иметь качественную связь и быстрый интернет.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стали особенно востребованными цифровые сервисы. Мы шире используем их в медицине, образовани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й. Идем к тому, чтобы возможности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были доступны жителям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частности, вместе с партнерами планируем расширить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рамки цифрового проекта «Умный город», который уже действу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число регионов-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Arctic Connect,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е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одводной волоконно-оптической линии связи из Европы в Азию. Она пройдет по дну Северного Ледовитого океана вдоль арктического побережья России и обеспечит самый быстрый сигнал с минимальным уровнем задержки. Отводы, построенные от основной линии, позволят предоставить качественную связь потребителям Арктик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частности, оператор планирует построить отвод

через Охотское море до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Обла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кажет проекту координационную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ую поддержку.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открылся новый кадровый центр «Работа России»

Здание для учреждения приобретено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труда и поддержка занятости».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Алексей Белик.

– Открытие нового центра занятости – это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каждого из вас. Теперь здесь созданы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широкого спектра услуг. В день поступает от 60 до 80 обращений. Уверен, что благодаря вашему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у и любви к своей работе, каждый посетитель центра получит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мощь, – обратился к собравшимся Алексей Белик.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Татьяна Бабич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обновление центра занятости, прежде всего, предполагает изменение формата работы.

– Службе занятости предстоит не просто оказывать стандартный набор привычных услуг, а решать комплекс пробле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жизненными ситуациями граждан и бизнес-ситуациям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Акцент меняется с заявительного принципа содействия в поиске работы на учитывающи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потенциал безработных и реальные запросы работодателей,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ведомства.

Сейчас проведен ребрендинг учреждения, внедрены стандарты бережли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ыделены функциональные секторы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 для информирования и ожидания, сектор первичного и вторичного приема граждан, залы дл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работы с гражданами и с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помещение для групповых занятий и консультаций. Кроме того, центр оснастили нов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мебелью – вместо привычных кабинетов здесь появились пространства в формате «open space». Работа учреждения построена по принципу единого окна.

– Раньше наш центр размещался в четырехкомнатной квартире, условия, конечно, были очень стесненные. Теперь помещений хватает. Оборудована зон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поиска работы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детский уголок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для граждан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группов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социальной адаптаци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поддержк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ориентации и обучению, – рассказала Юлия Яценко, директор Александровско-Сахалинского центра занятости.

Отметим, это уже третий центр занятости, получивший помещение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новые здания переехали кадровые центры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и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модернизацию провели в центре занято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будет модернизирован Анивский центр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вые пациенты готовы к вакцинации «Спутником Лайт»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тал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в России, куда направлен новый препарат. Минздрав РФ распределил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150 доз «Спутника Лайт». Первую партию из этого количества уже доставили, пациенты прошл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Однократное введение вакцины – главное условие, которое привлекает желающих привиться «Спутником Лайт». Но свои требования к кандидатам на эту прививку есть и у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Все пациенты должны пройт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включая контроль биохимических и клиничес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анализы на инфекции.

– 12 человек уже обследовались, их анализы показывают 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е состояние. Завтра они будут привиты.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получили медотвод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Еще 40 пациентов продолжают обследование, решение будет приниматься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их результатов,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внештатный инфекционис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Оксана Солоница.

Поступившая ранее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акцина «Спутник V» уже отлично себя зарекомендовала – на островах не выявлено ни одного случая тяжелых осложнений. По данным лабораторных анализов, у привившихся вырабатывается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антител.

– Скоро начнется отпускной сезон, многие планируют выезд на материк. Нужно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ть за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ей – в Европе ожидают третью волну пандемии, в нескольких странах опять введен локдаун. «Спутник V» формирует иммунный ответ на все штаммы, в том числе на «Южноафриканский» и «Британский». Прививка убережет от развития болезн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вернут 91 пункт вакцинации. Сделать прививку можно в поликлинике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а также в мобильных комплексах, во время выездов на предприятия и в удаленны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Записаться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у 1-300,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или лично обратившись в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한국교육원의 시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

(2면의 계속)

- 유학 관련 홍보자료들은 자주 메일로 옵니다. 거의 다 홍보를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제출서류는 많고 자격 조건은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장학 프로그램은 기다리는 분들이 많지만 선발 기준이 많이 엄격해지고 세계 전역에서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많습니다. 사할린에서 추천한 학생들 중 대략 50%정도는 선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서대학교의 경우, 사할린 인재양성 프로그램에서, 원활한 학습을 위해 한국어능력 4급을 요구하는데, 이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동서대학교에 유학했던 학생들이 한국어 3급을 받고 갔던 적이 있는데 수업을 이해하는데 고생이 많고, 장학생에서 탈락 위기에 처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20년에는 1명이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 한국어 교사를 위한 연수는요?

- 한국어 교사를 위한 연수는 사할린 국립대와 협의를 해 봐야 하는데, 이미 작년 10월에 실시하려다가 코로나19문제로 인해 연기, 연기되다가 결국 못했는데요. 아직 일정은 잡혀 있지 않지만 올해는 반드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원장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나요?

- 특별히 계획 중인 것은 없지만, 계속 꿈꾸는 사업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계획한다고 모두 이뤄지지는 않지만, 꿈꾸는 것을 멈추면 다가오는 기회도 못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교육부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어 채택 학교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정규과목으로 채택한 3교, 방과후 수업 교과로 채택한 2교, 코르사코프에 정규과

목 채택한 2교 외에는 없는데요. 북부지방 도시에 한국어 채택 학교를 1교 이상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그게 결국 그 도시에서 살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문제가 핵심인데요, 올해 사할린국립대에서 단과과정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성공리에 마치면 그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또 꿈꾸는 것은 사할린한인문화센터 혹은 교육원이 활발한 문화 교류, 문화 향유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웃과 어울리는 민속춤 클래스를 열었는데, 그것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알츠를 정말 배우고 싶다, 추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 민속춤, 러시아 민속춤 조화하면서 춤추고 싶은 것 골라 배우며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작지 않은 꿈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글쓰는 사할린' 혹은 '나의 삶, 우리네 역사-자서전 쓰기' 이런 명목으로 글 쓰는 강좌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기록물이 남고 그것들을 간추리면 사할린 한인 1세의 역사에 대한 회상이면서 2세, 3세의 역사, 자손들 세대에 대한 소망의 기록도 책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쓰기는, 최 빅토리아 작가와 사할린 한인회에서 시도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 작가님이 몇 차례 러시아어로 글쓰기의 의미와 방법 등에 관하여 수업을 해 주시고, 다른 강사님이나 제가 이어서 글쓰기, 발표, 한국어 익히기 등의 수업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꿈은 '한국어 고급' 강좌 개설과 안정적인 '한국 요리교실' 운영입니다. 중급과정이 끝나면, 더 이상 교육원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이 많아서 요구가 많습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가지

신 분이 맡아 주셔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교수님이나 제가 해야 하는데, 정말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을 찾는 것도 어렵구요. '한국요리강좌'는 코로나19의 타격이 정말 컸습니다. 그 이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요?

- 결국 앞에 말씀 드린, 꿈꾸는 것을 이루려는 방향으로 계획을 도모해야겠지요? 사할린 한인사회가 한국 문화의 맛과 연결됨을 체험하고 현재의 러시아 이웃들과 즐겁게 어울려 살아가는 작은 마당을 교육원에 만들어 드리는 일이라면 열심히 꿈꾸고 계획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어린이를 위한 김밥 만들기 클래스를 교육원 요리교실에서 열면 좋겠다는 분이 계셔서 흔쾌히 받아들이고 실시했는데요. 공적인 시설을 놀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에 교육원 요리교실에서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간편한 한국 요리 클래스는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의 즐거운 경험은 평생의 진로와 정서, 관계의 질을 좌우하니까요. 그리고 그 강사님이 한국 분이 아니라 한인 분이어서 또 의미가 큼니다.

앞으로도 한국문화체험(요리, 노래와 춤, 한국어, 공예, 악기, 태권도 등) 클래스를 주말마다 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계속하여 사람들이 모여 들어 즐거운 체험을 하는 한인문화센터, 한국교육원을 생각하면, 혼자 설레기도 합니다.

하여튼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계획해 나갈 생각입니다. 교육원에서 뭘 한다 하는 소리 들으시면 귀 좋다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 다. 원장님께서 꿈꾸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교육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말로 깨닫다]

두 종류의 사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은 사람을 구별할 때 유용한 잣대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숫자가 주어지면 그 수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틀에 짜인 생각이라는 점에서는 답답해 보이기도 하나 생각을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좋은 방법이니 필요할 때는 취해야겠지요. 연설문이나 논설문, 설명문에서도 이런 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주로 예를 들 때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정반합(正反合)의 구조라고나 할까요? 왠지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느낌이 납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분석 대상을 둘로 나누면 명확히 갈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둘이 나눔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음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양의 조화라는 말을 보면 음과 양은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함께 하여야 더 아름다운 일로 보입니다. 다음을 '다툼'으로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음양의 대표는 여자와 남자입니다. 남녀라고도 하죠. 밤과 낮도 음양을 상징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기준이 불명확하기도 합니다. 어른과 아이도 그런 예로 보입니다. 밤과 낮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나누어지지 않음을 깨닫는 것도 분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은 제가 일본어 공부를 할 때 나온 읽기 지문입니다. 외국어 공부는 언어뿐 아니라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를 지문에서 만나게 되면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외국어 공부의 좋은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좋은 지문이 필요하겠네요.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내용에 대해서도 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언어를 배우던 교재는 주로 고전이었습니다. 한자를 배우고 라틴어를 배웠는데 세상을 만나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읽은 일본어 지문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의 분류가 나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분류도 많았고, 정말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과 먹기만 하면 살이 찌는 사람의 분류는 맞아 맞아 하며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참칭하는 일본어 시간에는 지문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에 저도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어떤 예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재미있는 예들이 떠오르다가 문득 전에 썼던 글이 생각났습니다.

그 내용은 행복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에 관한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 소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세상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요? 세상은 살 만한 곳이 아닌가요?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렵지만 생각을 바꾸어야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은 세상에는 자신이 행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이 행복한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세상이 좋은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모두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좋은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내 눈과 머리를 감싸고 있는 한 겹이 세상을 달리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겹을 걷어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모든 종교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다르려고 하는 경지일 겁니다. 얼핏 불행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도 사실은 행복이 모습을 바꾸고 있는 한 부분이 라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행복이 늘 즐거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행복에는 아픔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지만 행복합니다. 세상에는 행복에 관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모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프게 깨닫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Олимпиада п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состоится 16-17 апреля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совместно с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со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И поколений связь, и нить традиций» проводят ежегодную традиционную Олимпиаду п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темой Олимпиады стала «Традиционная живопись эпохи Чосон».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со стороны СахГУ стали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и кафедра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и страноведения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Олимпиада пройдет 16-17 апреля в дистанционном формате,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IFIV@SAKHGU.RU, @IFIV_SAKH (указать ФИО, класс/курс,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контактные данные) до 31.03.2021г.

ОЛИМПИАДА П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ДИСТАНЦИОННЫЙ ФОРМАТ)

ТРАДИЦИОННАЯ ЖИВОПИСЬ КОРЕИ ПЕРИОДА ЧОСОН

тематика заданий

ЖАНР ЧЕТЫРЕХ БЛАГОРОДНЫХ РАСТЕНИЙ

ПЕЙЗАЖНАЯ ЖИВОПИСЬ, ЖИВОПИСЬ ГОР И ВОД

ЖАНР ИЗОБРАЖЕНИЯ ПТИЦ И ЖИВОТНЫХ

ПОРТРЕТНАЯ ЖИВОПИСЬ

ЖАНРОВАЯ ЖИВОПИСЬ, ЗАРИСОВКИ НРАВОВ И ОБЫЧАЕВ

НАРОДНАЯ ЖИВОПИСЬ

срок проведения: апрель 2021 г.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IFIV@SAKHGU.RU @IFIV_SAKH

(В ЗАЯВКЕ УКАЗАТЬ ФИО ПОЛНОСТЬЮ, КЛАСС/КУРС,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КОНТАКТНЫЕ ДАННЫ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전람회는 1999년- 2020년까지 완성된 교육 자료와 창작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폴란드, 한국, 중국의 어린 미술가들과 사할린주의 아동 예술학교 학생들의 정물화가 전시된다. 참가자들의 연령은 12세-19세이며 이들 작품은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 문화 분야 교육 자원센터의 미술재단에 소장되어 있다.

전시회는 4월 말까지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 3층 홀에서 열리며 관람은 무료다.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увидеть "Красоту предметного мира"

Детская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выставка натюрмортов "Красота предметного мира" открылас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22 марта.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совместно с областным ресурсным центром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Экспозиция сформирована из учебных и творческих работ, выполненных с 1999 по 2020 год. На ней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тюрморты учащихся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отделений детских школ искусст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ных художников Польши, Японии, Кореи и Китая. Возраст авторов — от 12 до 19 лет. Произведения находятся в собран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фонда ГБУК СОРЦ.

Выставка расположена в фойе третьего этажа Са-

хОУНБ и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конца апреля.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ОУНБ.

금융 전문가들, 일본 엔화로 저축할 것을 권유

러시아의 경제학자들이 현재 저축에 큰 수익을 안겨줄 3개 통화를 지목했다. 금융전문가들은 비축 자금을 보호하고 수익 증식을 위해서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국가 통화를 선호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바체슬라브 자이첸코 경제인은 '우라루(URA.ru)'언론에서 어떻게 하면 저축 자금을 변경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현재 자금 상황이 최대한 안정적이고, 거의 변동이 없는 국가 통화에 주의할 것을 기술했다.

"일본의 엔화와 뉴질랜드 달러, 캐나다 달러는 현재로서는 가장 선택할 만하고 경제성이 있으며 높은 주가변동성보다 손실이 적다."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일본의 엔화 환율은 현재 1엔에 69코페이크이고, 뉴질랜드 달러는 53. 27 루블리, 캐나다 달러는 58.74루블리다. 자이첸코의 말에 따르면 통화 저축은 가치 변동이 없으므로 안정적인 수단을 선택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하기로 한 통화 금액이 1년 후에 손실되는 쪽으로 변동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다."라고 바체

슬라브 자이첸코가 말했다.

Эксперты советуют хранить сбережения в японских иенах

Российские экономисты назвали три валюты, в которые наиболее выгодно вкладывать сбережения именно сейчас. Финансисты считают, что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материальных запасов и их приумножения следует отдавать предпочт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м денежным единицам Японии, Новой Зеландии и Канады.

Подробности о том, как наиболее выгодно конвертировать накопления, изданию URA.ru рассказал экономист Вячеслав Зайченко. Эксперт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валюту стран, в которых текущая ситуация с финансами максимальна устойчива и почти не меняется, в том числе из-з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Иена, новозеландец. Просто самы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экономики, которые подвержены меньше всего высокой волатильности. И канадский доллар», – рассказал аналитик.

Курс японской иены, по данным Центробанк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оставляет 69 российских копеек. Новозеландский доллар стоит 53 рубля 27 копеек, а канадский – 58,74 рубля. По словам Зайченко, сберегательная валюта не должна быть волатильной (изменячивой. – Прим. ред.),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отдавать предпочтение стабильным вариантам.

«Самое главное — понимание того, что через год сумма, которую вы определили для инвестиций, не изменится в худшую сторону», – рассказал Вячеслав Зайченко.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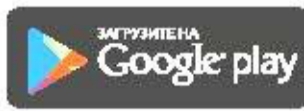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сах.ком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